

17~18세기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과 가족*

김 영 나**

- | | |
|---------------|------------------|
| I. 머리말 | III. 노비의 혼인과 가족 |
| II. 노비의 규모 | 1. 노비의 혼인유형과 자녀수 |
| 1. 노비의 수 | 2. 노비의 가족 형태 |
| 2. 노비의 나이와 신공 | IV. 거주 지역 |
|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7~18세기 『소수서원노비안』 등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노비의 혼인 및 가족 형태, 거주 지역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18명의 노비가 있었으나, 17세기에는 134명으로, 18세기에는 380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노비 중에서 1677년에는 10세 이하가, 1762년과 1783년에는 71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왜냐하면 1762년과 1783년에는 이전의 소수서원 노비가 모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외거노비는 신공으로 쌀을 냈고, 원촌에 거주하면서 신역을 담당한 노비와 원노와 양녀의 소생, 서원에 임시로 소속된 노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BK+ 박사후연구원 / pureangel-17@hanmail.net

비는 쿵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소수서원 노비는 院村에 거주하면서 서원의 일을 하더라도 신공도 함께 담당하였다.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은 전체적으로 미상과 원비의 혼인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1667년에는 원노와 원비의 혼인, 1762년과 1783년에는 원노와 미상, 원노와 양녀의 혼인이 많았다. 원노와 사비의 혼인은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소수서원 노비의 세대유형별 가족에서 중복된 노비 가족을 제외하면 2세대가 가장 많고 다음은 7세대였다. 3, 4세대의 가족들은 대체로 7세대 이상에 포함되었다. 서원노비의 가계는 사노비보다 연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서원노비들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수서원 노비들은 경상도 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다. 18세기에 원촌에 노비가 집중적으로 거주하였지만, 거주 지역은 더 다양해졌다. 驛이나 齋舍, 다른 서원의 서원촌에도 거주하는 노비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17~18세기의 소수서원 노비의 노비 수, 나이와 신공, 혼인과 가족관계, 거주 지역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소수서원 노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주제어

紹修書院, 노비, 奴婢案, 혼인, 가족, 거주 지역

I. 머리말

조선의 노비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이자 국가와 사족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 따라서 노비와 관련된 연구는 신분제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족의 주요 활동 기반이며 사족 공론의 중심지인 서원의 노비 자체는 주목하지 않았다.

1550년 소수서원이 사액되면서 서원노비의 존재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국가나 지방관, 사족들이 서원에 노비를 주었다. 또한 서원노비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가 서원 소속이 되거나, 매득 등을 통해 획득하였다.

서원노비 연구는 1960년대에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분석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 각 서원에 소장된 고문서 자료가 수집·정리되면서 대체로 경상도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서원노비가 증가한 주요 이유는 양천교혼이었고,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 뿐만 아니라 屬寺와 屬店, 서원촌 등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는 서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안에서 서원노비를 다룬 것이다.¹⁾

여기에서는 조선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의 노비에 대해 살펴보겠다. 소수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 군수 주세붕에 의해 백운동서원으로 창건되었고, 1550년(명종 5) 사액을 받았다. 安珦·安軸·安輔를 제향하였고, 1633년(인조 11) 주세붕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소수서원이 사액을 받게 된 배경에는 이황의 역할이 컸다. 그는 향촌 교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소수서원의 사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만든 소수서원 원규는 다른 서원 운영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소수서원은 조선 서원의 기반을 확립한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서원에 대해서는 서원 교육 연구가 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1) 閔丙河, 「朝鮮書院의 經濟構造」, 『대동문화연구』 5, 1968 ; 李樹煥, 「朝鮮時代 書院의 人的構成과 經濟의 基盤」,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 문숙자, 「朝鮮後期 書院奴婢의 身分의 性格-陶山書院 古文書를 통한 검토-」, 『퇴계학연구』 11, 1997 ; 손병규, 「조선후기 경주옥산서원의 노비경영」, 『泰東古典研究』 17, 2000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등.

소수서원 교육의 토대였던 공적 기반 변화와 그에 대한 소수서원의 대응 등을 살펴본 연구와,²⁾ 소수서원·도산서원·도동서원·옥산서원·돈암서원 등 5개 서원의 강학 관련 자료를 통해 서원별 강학의 특징을 검토한 연구도 있다.³⁾

또한 소수서원의 『任事錄』과 『入院錄』 등을 이용하여 원장과 원생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를 통해 원장과 원생의 거주지, 성씨, 과거 시험 합격률 등을 살펴보았다.⁴⁾

기존의 소수서원 연구에서 사회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고, 특히 노비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수서원 노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紹修書院奴婢案』이다.⁵⁾ 현재 1677년·1762년·1783년 노비안이 남아 있고, 1762년과 1783년 노비안은 노비보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세 노비안 모두 간지로 연도를 기재하여서 노비안에 있는 소수서원 원장의 성과, 立議와 明文 등을 통해 연도를 추정하였다. 1762년과 1783년 노비안은 족보 형식으로 기재되어 노비 가족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노비안의 수정에 대한 명문이 노비안 앞뒤에 기재되어서 소수서원에서 노비안 改修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紹修書院謄錄』이다.⁶⁾ 1546년(명종 1) 2월 5일부터 1670년(현

2)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公的 기반 변화와 그 대응-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2015.

3)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儒學研究』 48, 2019.

4)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4, 2006 :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8, 2007 : 「18·19세기 소수서원의 院生 연구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 제2권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41, 2008.

5) 『紹修書院奴婢案』,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기증사료, (증귀) 370.9 소수서원-1·2·3.

6) 『紹修書院謄錄』(奎古 485), 朝鮮史編修會, 1937(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중 11) 4월 7일까지 소수서원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가 어떠한 대상을 서원노비로 지급해주었고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로 서원노비가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영남문헌연구소에서 편찬한 『紹修書院誌』上·下는 소수서원에서 만든 고문서와 성책 등을 조사한 책으로, 소수서원의 사료가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밝혔고, 관련 고문서들을 기재하였다.⁷⁾

여기에서는 앞의 사료들을 통해 소수서원 노비의 수와 나이, 혼인상태와 자녀, 노비의 가족, 거주지역 등을 분석하여 서원노비의 혼인과 가족에 대해 밝혀보겠다.

II. 노비의 규모

1. 노비의 수

소수서원은 설립 초기에 원노 3명, 원비 15명, 합 18명의 노비가 있었다. 1546년(명종 1) 3월 30일 풍기군수 周世鵬의 牒報에서 소수서원으로 이속시킨各司의 노비 5명의 소속과 이름 및 나이를 덧붙였다. 內贍寺의 비 檢德(11세)과 노 奇孫(21세), 濟用監의 노 玆伊(23세), 內資寺의 비 時從(10세)과 비 莫從(13세) 등 寺奴 2명과 寺婢 3명이다.⁸⁾

같은 해 7월 18일에는 비 九月과 象德 등이,⁹⁾ 11월 21일에는 강도살인을 하고 죽은 甕匠 李孫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원 유생들의 供饋를 위해 소수서원에 소속되었다.¹⁰⁾

7) 영남문헌연구소 편, 『紹修書院誌』上·下, 소수서원, 2007.

8) 『紹修書院謄錄』(奎古 485), 6쪽. “豐基郡守爲牒報事…(중략)…啓下白雲洞書院移屬各司奴婢所生五口乙, 花名年世, 并以後錄牒報爲遣…(중략)…後錄內贍寺婢檢德年十一丙申生, 奴奇孫年二十一丙戌生, 濟用監奴玆伊年二十三甲申生, 內資寺婢時從年十丁酉生, 婢莫從年十三甲午生.”

9) 『紹修書院謄錄』(奎古 485), 9쪽.

1547년 2월 26일 관찰사 관문에 의하면,晉州에서 문서를 위조한 正兵 姜世豪의 처 良女, 이들의 딸 召史와 아들 還起, 의령에서 강도짓을 한 才人 劉孟江의 처 才人 丹非와 이들의 1소생 딸 七非, 산음에서 강도짓을 한 노 中伊의 처 양녀 鳳伊, 거창에서 강도짓을 한 白丁 末叱金의 처 백정 銀今 등이 모두 소수서원에 소속되었다.¹¹⁾

따라서 소수서원 초기의 노비들은 관이나 지방관이 지급해 주거나 범죄자의 가족들을 壓良爲賤하여 서원에 소속시켰고, 이들은 소수서원 근처뿐만 아니라 진주·의령·거창·산음 등 경상도 남부에도 거주하였다.

한편 역동서원은 11명, 옥산서원은 15명, 병산서원은 11명의 노비를 설립 초기에 관과 지방관에게 받았다. 따라서 서원이 건립될 때 국가나 관에서 노비를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다음은 노비안을 통해 소수서원 소속 노비의 수를 살펴보았다.

<표 1> 소수서원 노비의 수

(단위 : 명)

성별 年	원 노	故	逃	未 推	실제 노	원 비	故	逃	未 推	실제 비	성별 미상	故	逃	未 推	실제 미상	실제 수
1667	74	14	10	0	50 (37.3%)	104	12	8	0	84 (62.7%)	0	0	0	0	0	134 (100%)
1762	263	72	27	0	164 (42.9%)	280	52	20	1	207 (54.2%)	11	0	0	0	11 (2.9%)	382 (100%)
1783	267	72	38	1	156 (41.6%)	293	57	26	1	209 (55.6%)	16	1	1	4	10 (2.8%)	375 (100%)

10) 『紹修書院謄錄』(奎古 485), 11~12쪽. “興海郡守爲起送事, 在逃殺人強盜李孫妻今之及物故賤人李孫等妻子花名年歲居住, 并以開錄, 牒報回送內節該, 良人李孫女子汗分訥叱斤, 良妻今之內隱非等乙良, 順興書院居接儒生供饋奴婢以永屬…(중략)…後興海接甕匠女內隱非年三十九, 一女汗分年九, 二女訥叱斤年七, 右人等段, 物故殺人強盜甕匠李孫妻子以定屬, 興海接良女今之年二十, 右人段, 在逃殺人強盜李孫妻以定屬.”

11) 『紹修書院謄錄』(奎古 485), 15~16쪽. “(전략)…晉州官以推考取服爲有, 在物故印信偽造, 正兵姜世豪妻良女召吏, 女子召史, 子還起等, 及同州以推考, 物故強盜宜寧接才人劉孟江妻才人女丹非, 同女一所生女七非, 山陰官以推考, 在逃即同獄成強盜奴中伊妻良女鳳伊, 居昌官以推考, 物故強盜白丁末叱今妻白丁女銀今等乙, 同文成公廟書院婢子以, 依大典永永定給爲去乎…(후략).”

12) 김영나, 『조선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4쪽.

1667년 노비안¹³⁾에는 원노 50명(37.3%), 원비 84명(62.7%), 합 134명이 있었고, 원비가 원노보다 많다. 소수서원 설립 초기부터 약 100여년 사이에 18명에서 134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서원에서 買得한 노비 5명이 있다. 원노 得守의 1소생 원노 得龍(47세)을 買得하였는데, 득룡은 서원에 신공을 납부하였다. 득수의 아들 득룡을 서원에서 매득하였기에, 득수는 다른 소속의 비와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노 戊仁은 戒香과 혼인하였는데, 1663년(현종 4)에 계향과 그의 딸 一眞을 매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1663년 이후에 태어난 무인과 계향의 소생들은 모두 소수서원 노비가 되었다. 고노 先卜은 買得妻 孫先과 혼인하여 네 자녀를 낳았고, 원노 命立와 買得妻 孫從 사이에는 6명의 자녀가 있었다.

매득노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원노의 혼인이다. 원노의 혼인대상에 따라 그 소생의 소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원노가 서원의 이익에 반하는 혼인을 하는 경우 원노의 혼인상대방이나 그들의 자녀를 買得의 방식으로 획득하였다.

1762년 노비안¹⁴⁾에는 원노 164명(42.9%), 원비 207명(54.2%), 성별 미상 11명(2.9%), 합 382명이 있고, 원노보다 원비가 더 많다. 1667년보다 원노는 4배 정도, 원비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노비안 이전에 1747년 노비안이 있었는데, 1762년 노비안에 ‘丁卯案付’라고 기재하여 1747년(영조 23) 노비안의 내용을 더 추가하였다. 1762년 노비안 끝부분에 이와 관련된 명문이 있다.

13) 『紹修書院奴婢案』,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기증사료, (중귀) 370.9 소수서원-1.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는 이 노비안의 연도를 1737년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원장의 성은 ‘徐’씨였으나, 1737년 소수서원 원장은 金呂徵(영남문헌연구소 편, 『紹修書院誌』 下, 소수서원, 2007, 1002쪽(『紹修書院任事錄』 권2)), 1677년 소수서원 원장은 徐琚이었다(영남문헌연구소 편, 『紹修書院誌』 下, 소수서원, 2007, 995쪽(『紹修書院任事錄』 권1)). 따라서 이 노비안은 1677년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4) 『紹修書院奴婢案』,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기증사료, (중귀) 370.9 소수서원-2.

II-가.

이 노비안은 본 서원의 가장 긴요한 사안이다. 옛날 노비안은 많아서 흐려졌으며, 노비의 추쇄가 오랫동안 행해지지 않아서 노비의 사망과 출생을 신빙하여 근거할만한 것이 없다. 이에 노비안을 고치고 수정하여 새 문헌에 노비 세대의 유래를 우선적으로 기록한다. 또한 노비 소생의 많고 적음을 추가로 기록하는데, 사망과 도망을 제외하고 실제로 추가된 96명을 기록한다. 지금부터는 매 식년마다 노비 호적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 新案을 고찰한다. 成冊에 도장을 찍어서 유실하는 염려가 없도록 할 것이다. 임오년 맹춘. 원장 권. 별유사 배, 서. 상유사 김¹⁵⁾

이전 노비안이 많이 낡았고 노비의 추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비안을 새로 작성하였으며, 사망과 도망 등을 제외한 96명을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丙戌加括’, ‘戊子加括’이라고 기재하여 1762년 이후 1766년(영조 42)과 1768년(영조 44)의 노비를 더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노비안은 1762년에 작성되었지만 그 이전인 1747년과, 이후인 1766년과 1768년의 변화양상도 함께 볼 수 있다. 1766년과 1768년에 추가된 노비는 원노 5명, 원비 4명, 합 9명이다. 따라서 원래 1762년 노비의 수는 374명이지만, 이후 노비안이 따로 남아 있지 않고 1762년 노비안과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서 여기에 포함시켰다.

1762년에 기재된 매득노비는 원노 甫元이다. 이 노는 1747년에도 있었는데, 소수서원 비와 혼인하여서 서원에서 매득한 것이다.

1783년 노비안¹⁶⁾에는 원노 156명(41.6%), 원비 209명(55.6%), 성별미상 10명(2.8%), 합 375명이 있었다. 1762년보다 원노와 성별미상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원비의 수는 증가하였다. 未推는 원노 1명, 원비 1명, 성별미상 4명이다.

이 노비안에도 1768년에 추가된 원노 1명, 원비 2명이 지속적으로

15) 안승준, 「紹修書院奴婢案」,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善本 古書 해제집』 3,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284~285쪽. “右奴婢案最本院緊要事, 而舊案刊缺, 推刷曠廢, 物故生產無憑可考. 茲以改修正, 新件先錄, 世代根脈. 又附錄所生多寡, 除物故逃亡外, 實人口合九十六口. 自今以後, 每式年考籍時, 按此新案. 成冊踏印, 俾免遺失之患云, 歲壬午孟春. 院長權. 別有司襄, 徐. 上有司金.”

16) 『紹修書院奴婢案』,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기증사료, (증귀) 370.9 소수서원-3.

기재되었다. 이 중 1755년에 태어난 원비 已丹은 1762년 노비안에도 나오고, 1785년에는 혼인을 하여 寧越에 거주하였다. 한편 원노 2명, 원비 1명을 추쇄하였는데, 이들은 추가로 별지에 기재하였다. 원비 卜亥의 1소생 원비 聖化와 그의 1소생 원노 畚同, 복해의 2소생 원노 哀高之는 1785년 노비안 작성 때는 榮川 熊谷에 숨어 있었다가, 1794년(정조 18)에 찾아서 추쇄하였다.

1783년 노비안 끝부분에도 노비안의 수정에 관한 명문이 있다.

II-나.

지난 임오년에 노암 권공이 원장을 맡았을 때 본 서원의 노비안을 수정하여 노비의 사망·출생·도망을 확연히 기록하여 상고할 수 있었다. 그 후 22년이 지나는데 사이 또 출생한 자와 사망한 자가 많아 증거로 삼아 상고할 수 없었다. 내가 원장직을 맡아 각처의 노비를 추쇄하여 도망한 자와 사망한 자는 ‘逃’와 ‘故’로, 태어난 자는 ‘生年’으로 기록하여서 뒤에 직임을 맡은 사람이 상고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게 하였다. 新案을 책으로 만들고 도장을 찍었으니, 원임들이 노비의 사망·출생·도망의 소식을 들으면 추가로 기록하여 노비가 유실되는 염려가 없도록 할 것이다. 계묘년 4월 초 8일. 원임 금. 별유사 성, 황¹⁷⁾

1762년에 노비안을 改修하여 정리하였으나 이후 22년이 지나도록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비안을 다시 만든다고 하였다. 1783년 원장은 黃羽漢(1714~1791)이고, 별유사는 成彦格과 黃濬孝이었다.¹⁸⁾ 또한 노암 권공은 1761년부터 1763년까지 소수서원 원장이었던 權九淵이다.¹⁹⁾

소수서원 노비는 1667년 134명에서 1762년 3배 정도 증가하였고, 원노보다 원비가 더 많았다. 앞에서 파악하지 못한 노비를 파악하여 추

17) 안승준, 앞의 책, 285쪽. “去壬午歲, 魯菴權公當洞主時, 修整本院奴婢案, 物故生産逃亡昭載可考, 而厥后二十二年來又多生産物故, 而無憑可考. 不佞忝任推刷各處奴婢, 逃故則懸以逃故, 生則懸以生年, 以爲後之當任者考據, 而新案成冊踏印, 院坐隨聞追書, 俾免遺失之患, 幸甚, 實人口八十四. 癸卯四月初八日. 院任 琴. 別有司 成, 黃.”

18) 영남문화연구원 편, 『紹修書院誌』 下, 소수서원, 2007, 1010쪽(『紹修書院任事錄』 권2).

19) 앞의 책, 1006쪽(『紹修書院任事錄』 권2).

가로 기재하였고, 노비안 작성 이후에 추가된 노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비안 改修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1667년 노비안은 노비의 출생과 사망 등 노비의 현재 상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지만, 1762년과 1783년 노비안은 노비보, 즉 족보의 형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노비의 소종래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²⁰⁾ 따라서 앞의 II-나 명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즉 1667년 노비안에는 현 시점에서 실제 소유한 노비를 기재했지만, 1762년과 1783년 노비안에는 실제 소유한 노비와 이들의 윗 세대를 함께 기재하였다. 따라서 1762년과 1783년의 실제 노비 수는 노비의 나이를 분석해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미 사망 상태인데도 ‘故’를 기재하지 않는 노비들이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1762년과 1783년 노비안은 소수서원에 소속된 노비들과 그들의 윗 세대들이 모두 서원 소속의 노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도로 작성되었다.

2. 노비의 나이와 신공

노비의 나이는 대체로 老·壯·弱으로 구분하는데, 『經國大典』에, ‘외거노비에 대해서 選上하였거나 잡다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6세 이상부터 60세 이하는 모두 身貢을 거두어 司贍寺에 상납한다. 奴는 綿布 1필, 楮貨 20장이고, 婢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이다.’²¹⁾ 라고 하였다. 따라서 老는 61세 이상, 壯은 16~60세 사이, 弱은 15세 이하라고 할 수 있다. 소수서원에 소속된 노비의 나이는 다음과 같다.

20) 김영나, 앞의 논문, 10~11쪽. 도남서원의 1754년 노비안과, 필암서원의 1745·1746년 노비안도 노비보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21) 『經國大典』, 「戶曹」, 徭賦, 外居奴婢收貢. “外居奴婢, 除選上·雜故外, 年十六歲以上六十歲以下, 並收貢, 皆納司贍寺. 奴, 綿布一匹·楮貨二十張, 婢, 綿布一匹·楮貨一十張.”

<표 2> 소수서원 노비의 나이 분포

(단위 : 명)

		1677			1762				1783			
나이		원노	원비	합	원노	원비	상별 미상	합	원노	원비	상별 미상	합
弱	1~10세	11 (22%)	21 (25%)	32 (23.9%)	8 (4.9%)	8 (3.9%)	-	16 (4.2%)	9 (5.8%)	10 (4.8%)	-	19 (5.1%)
	11~15세	9 (18%)	10 (11.9%)	19 (14.2%)	4 (2.4%)	2 (1.0%)	-	6 (1.5%)	5 (3.2%)	7 (3.3%)	-	12 (3.2%)
壯	16~20세	2 (4%)	9 (10.7%)	11 (8.2%)	6 (3.7%)	6 (2.9%)		12 (3.1%)	6 (3.8%)	2 (0.9%)		8 (2.1%)
	21~30세	9 (18%)	15 (17.9%)	24 (17.9%)	15 (9.1%)	7 (3.4%)	-	22 (5.8%)	10 (6.4%)	8 (3.8%)	-	18 (4.8%)
	31~40세	6 (12%)	7 (8.3%)	13 (9.7%)	12 (7.3%)	4 (1.9%)	-	16 (4.2%)	3 (1.9%)	8 (3.8%)	-	11 (2.9%)
	41~50세	2 (4%)	8 (9.5%)	10 (7.5%)	8 (4.9%)	10 (4.8%)	-	18 (4.7%)	12 (7.7%)	9 (4.3%)	-	21 (5.6%)
	51~60세	3 (6%)	3 (3.6%)	6 (4.5%)	6 (3.7%)	11 (5.3%)	-	17 (4.5%)	10 (6.4%)	4 (2.2%)	-	14 (3.7%)
	61~70세	4 (8%)	2 (2.4%)	6 (4.5%)	6 (3.7%)	7 (3.4%)	-	13 (3.4%)	4 (2.6%)	8 (3.8%)	-	12 (3.2%)
老	71세~	1 (2%)	4 (4.7%)	5 (3.7%)	17 (10.4%)	40 (19.3%)	-	57 (14.9%)	26 (16.7%)	55 (26.3%)	-	81 (21.6%)
추가기재		1 (2%)	2 (2.4%)	3 (2.2%)	15 (9.1%)	11 (5.3%)	-	26 (6.8%)	3 (1.9%)	2 (0.9%)	-	5 (1.5%)
미상		2 (4%)	3 (3.6%)	5 (3.7%)	67 (40.8%)	101 (48.8%)	11 (100%)	179 (46.9%)	68 (43.6%)	96 (45.9%)	10 (100%)	174 (46.4%)
합		50 (100%)	84 (100%)	134 (100%)	164 (100%)	207 (100%)	11 (100%)	382 (100%)	156 (100%)	209 (100%)	10 (100%)	375 (100%)

1677년 노비안에서 나이가 확인되지 않는 노비는 추가 기재된 3명과 미상 5명이다. 추가 기재된 노비는 1677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나이가 확인되는 126명의 노비 중에서 弱은 원노 20명(40%), 원비 31명(36.9%), 합 51명(38.1%)이고, 壯은 원노 22명(44%), 원비 42명(50%), 합 64명(47.8%)이며, 老는 원노 5명(10%), 원비 6명(7.1%), 합 11명(8.2%)이다. 신공과 신역을 부담하는 壯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앞으로 서원에 이익을 줄 弱 연령층이 많았다. 이를 10세 단위로 살펴보면, 1~10세 사이가 원노 11명(22%), 원비 21명(25%), 합 32명(23.9%)으로 가장 많고, 10대는 30명, 20대는

24명이다. 따라서 壯과 弱 연령층이 많았다.

1762년 노비안에서 나이가 확인되지 않는 노비는 추가 기재된 26명과 미상 179명이다. 이렇게 나이 미상의 노비가 많은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노비안은 현재 살아있는 노비들의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 후손들까지 소수서원 소속의 노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나이가 확인되는 노비 중에서도 71세 이상이 57명(14.9%)으로 가장 많았는데, 나이로 보아서 이미 사망해야 하는 노비들의 이름에도 故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70세까지를 실제 존재하는 노비로 규정하고 살펴본다면, 弱은 원노 12명(7.3%), 원비 10명(4.9%), 합 16명(5.7%)이고, 壯은 원노 47명(28.7%), 원비 38명(18.3%), 합 85명(22.3%)이며, 老는 원노 6명(3.7%), 원비 7명(3.4%), 합 13명(3.4%)이다. 壯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弱·老의 순서이다. 10세 단위로 살펴보면, 20대가 원노 15명(9.1%), 원비 7명(3.4%), 합 22명(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대와 40대가 18명, 50대가 17명, 1~10세와 30대가 16명이 있다. 따라서 앞의 노비안과 같이 서원에 의무를 담당하는 노비들이 많았다.

1783년 노비안도 1762년 노비안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74명의 나이는 알 수 없다. 또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노비 중 71세 이상이 81명(21.6%)으로 가장 많지만 역시 1762년 노비안과 같은 이유로 70세까지를 실제 존재하는 노비로 규정하였다. 弱은 원노 14명(9%), 원비 17명(8.1%), 합 31명(8.3%)이고, 壯은 원노 41명(26.2%), 원비 31명(15%), 합 72명(19.1%)이며, 老는 원노 4명(2.6%), 원비 8명(3.8%), 합 12명(3.2%)이다. 앞서와 같이 壯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弱·老의 순서이다. 10세 단위로 살펴보면, 40대가 21명(5.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10대 20명(5.3%), 20대 18명(4.8%)이다. 1762년에 20대였던 노비들이 1783년에 40대가 되었기에 1783년에 40대의 노비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 당시도 壯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소수서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노비를 살펴보면 1762년에 114명, 1783년에 115명이 있었다. 비슷한 시기 옥산서원에서는 1758

년 132명, 병산서원에서는 1762년 151명의 노비가 있었다.²²⁾ 따라서 18세기 경상도의 대표적인 몇몇 서원들은 이 정도 규모의 노비를 소유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양반 가문의 노비의 나이를 살펴보면, 17~19세기 진천 평산 신씨 가문 노비의 나이는 壯이 62.9%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21~50세가 51.5%였으며, 1~20세 및 51세 이상은 48.5%였다. 양반 가문에서는 재산을 상속할 때에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 노비를 분배하였고, 서원과 마찬가지로 壯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²³⁾

소수서원 노비들의 나이 분포를 보면, 壯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弱이었다. 서원에서는 신공 납부 대상 노비의 수가 많을수록 서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서원 노비가 소수서원에 낸 신공과 신역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經國大典』에는 외거노비 중 16세 이상부터 60세 이하 중 奴는 綿布 1필, 楮貨 20장, 婢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내게 하였다.²⁴⁾ 1664년(현종 5)에는 노 1필 반, 비 1필로 줄였고,²⁵⁾ 1755년(영조 31)부터 寺奴는 1필, 寺婢는 반 필을 냈으며,²⁶⁾ 1774년(영조 50)에는 公私婢 모두 신공을 없앴다.²⁷⁾ 사노비는 돈이나 포, 쌀, 물품 등을 신공으로 냈다.²⁸⁾

22) 김영나, 앞의 논문, 22쪽, 34쪽.

23) 김의환, 「17~19세기 진천 평산 신씨의 노비 소유와 노비의 존재양상」, 『한국학논총』 44, 2015, 249쪽.

24) 각주 22와 같음.

25) 『顯宗改修實錄』 권17, 현종 8년(1667) 5월 6일(기유). “致和曰: ‘大典奴婢身貢條, 有各司奴婢貢布各一匹之外, 奴則楮貨二十張, 婢則十五張. 而今則不捧楮貨, 故奴則加捧布一匹, 婢則加捧布半匹, 奴婢輩不能支堪, 逃避日滋. 事當參酌蠲減, 以施實惠矣.’ 上曰, ‘奴婢貢布, 各減半匹, 永爲定式.’”

26) 『英祖實錄』 권83, 영조 31년(1755) 2월 27일(신미). “上命摠戎使洪鳳漢, 戶曹參判李成中, 備局副提調金致仁, 講確寺奴婢減布節目, 下綸音曰…(중략)…先下減貢之令, 奴則減一疋, 婢則減半疋, 特定堂上成其節目…(후략).”

27) 『備邊司謄錄』 156책, 영조 50년(1774) 3월 11일. “今日入侍時, 傳曰…(중략)…今後毋論公私賤, 奴婢中以女 爲名者, 其何苟且於半疋, 其貢特全減, 以示予暮年繼述之意…(후략).”

소수서원에는 신공안 등이 남아 있지 않아서 노비가 신공과 신역을 어느 정도 부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759년의 院中完議를 살펴보면 소수서원 노비가 낸 신공과 양을 알 수 있다.

II-다.

院中完議

(전략)

一. 본원의 노복으로서 숨어서 누락되고서 추쇄되지 않은 자가 많이 있는데, 생존 여부와 많고 적음에 대하여 담당자가 전담하여 살피지 않아 貢物을 징수한 수량이 전에 비하여 크게 줄었다. 앞으로는 특별한 조치로 추쇄하여 하나하나 노비안에 기록하고, 죽은 자와 새로 태어난 자와 공물을 징수하는 자의 수를 차례로 註記하여 해마다 증빙하여 고찰하게 하여, 사실대로 공물을 징수하여야 한다.

一. 근래에 노비들에게 공물을 거둘 때에 혼잡하고 시끄러운 폐단이 많았다. 元奴婢와 屬奴婢를 구별하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下軍이 중간에서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한다.

一. 元奴婢로서 外地에 거주하는 자는 그 양을 줄여서 각각 개인마다 쌀 1석씩 거두고, 비록 元奴婢라도 가까운 곳에 살며 종종 서원 일에 종사하는 자는 그 양을 줄여서 각각 콩 12두씩 수납한다.

一. 奴와 양처 소생과, 假屬奴婢는 거주지가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각각 역시 콩 12두를 수납한다.

기묘년(1759, 영조 35) 3월 초7일. 院長 李. 堂中 50명²⁹⁾

28) 김건태, 「16세기 양반지주층의 경제활동」, 『역사와 현실』 16, 1995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연구』, 집문당, 1997, 60~87쪽 ; 김건태, 「18세기 중엽 사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75, 2011, 122~128쪽.

29) 영남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87~290쪽. “(전략)… 一. 本院奴僕, 多有隱漏未推者, 存亡多寡之數, 當任者專不檢察, 貢餼徵納, 比前太縮. 今後, 別樣推刷, 一一載錄於奴婢案, 其物故及新生及徵貢之數, 次次懸註, 以爲逐年憑考, 從實徵貢之地事. 一. 近來奴婢收貢之際, 多有混雜紛紜之弊. 元奴婢及屬奴婢乙不可不區別磨鍊. 無至下軍中間幻弄之地事. 一. 以元奴婢而外居者, 則減其數, 而每名各米一石式收貢爲遣, 雖是元奴婢居近地而種種使役者, 則減其數, 而每名以太十二斗收納事. 一. 奴良妻并產及假屬奴婢, 則勿論遠近居住. 每名亦以太十二斗收納事. 己卯三月初七日. 院長 李. 堂中五十員.”

원중완의 작성의 주관자는 원장 李漢龍³⁰⁾이다. 총 10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 중 서원노비와 관련된 조항은 4가지이다. 첫째, 서원의 노비를 하나하나 찾아서 노비안에 기재하고 공물을 제대로 거두라고 하였다. 둘째, 元奴婢와 屬奴婢를 구별하여 공물을 거둘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元奴婢 중 外地에 거주하는 노비에게 쌀 1석씩,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신역을 담당하는 노비는 콩 12두를 내라고 하였다. 넷째, 원노와 양처의 소생과 임시로 서원에 속한 노비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콩 12두를 냈다.

외거노비는 신공으로 쌀 1석을 냈고, 원촌에 거주하면서 신역을 담당한 노비와 원노와 양녀의 소생, 서원에 임시로 소속된 노비는 콩 12두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소수서원 노비는 서원 근처에 거주하면서 신역을 맡더라도 신공도 함께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노비의 혼인과 가족

1. 노비의 혼인유형과 자녀수

노비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자녀는 노비이고, 천인 사이의 소생은 어머니 쪽으로 귀속되었다. 사족들은 노비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奴娶良女 등의 혼인을 이용하였고, 서원에서도 노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양친교혼을 장려하였다. 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양인과 천인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1731년 제정된 종모법은 자녀는 모두 어머니의 역을 따르는 것으로, 어머니가 천인이면 자녀도 천인,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녀는 양인이 되었다.³¹⁾ 따라서 노비의 혼인유형은

30) 영남문헌연구소 편, 『紹修書院誌』 下, 1006쪽(『紹修書院任事錄』 권2). 이한룡은 1758년 3월에 원장으로 임명되어 1759년 11월까지 역임하였다.

31) 『續大典』, 「刑典」, 公賤. “公·私賤娶良妻所生男女, 竝從母役. 顯宗己酉(1669), 始命從良. 肅宗乙卯(1675), 還賤. 辛酉(1681), 又從良. 己巳(1689), 還賤, 而已屬良役者, 勿論. 當寧庚戌, 又命辛亥(1731)正月初一日子時爲始, 所生竝從母役.”

종모법(1731) 이전과 종모법 이후에 차이가 있었다. 공노비는 1731년 이후 특히 공노의 교혼 비중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었고, 사노와 양녀의 혼인 역시 점차 줄어들었다.³²⁾ 그렇다면 서원노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수서원의 立議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Ⅲ-가.

立議

서원의 奴가 다른 집안의 婢와 혼인한 자의 전답은 그 자녀에게 傳給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賣食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서원에서 일일이 조사하여 노비를 잃어버리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이다. 무자(1648, 숙종 34) 9월 17 일. 完議³³⁾

이 입의는 원노의 혼인에 대한 내용으로 1667년 노비안의 앞면에 실려 있다. 원노가 다른 집안의 비와 혼인한 경우 원노의 전답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고, 원노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서원에서 그 원노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 혼인으로 태어난 소생들은 어머니의 주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서원에서는 원노와 다른 소속의 비와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노비안을 통해 노비의 혼인상대와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파악해보겠다.

<표 3>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상대와 자녀수

(단위 : 명)

연도	혼인상대	혼인건수	자녀수			
			원노	원비	성별미상	합
1667	원노+ 원비	8(10.8%)	3	2	0	5(2.8%)
	원노+ 양녀	3(4.0%)	2	3	0	5(2.8%)

32) 김영나, 앞의 논문, 211~213쪽.

33) 안승준, 앞의 책, 284쪽. “右立議. 院奴他婢作妻者田畝乙, 使不得傳給其子女, 亦不使賣食爲有可. 其亦身死後, 院以一一推尋, 俾無遺失之弊事. 戊子九月七日 完議.”

	원노+ 미상	5(4.1%)	7	12	0	19(10.8%)
	공노+ 원비	2(5.5%)	1	0	0	1(0.8%)
	미상+ 원비	56(75.6%)	60	85	0	145(82.8%)
	합	74(100%)	73	102	0	175(100%)
1762	원노+ 원비	2(0.9%)	1	1	0	2(0.3%)
	원노+ 공비	1(0.7%)	0	0	0	0
	원노+ 양녀	10(4.8%)	7	6	0	13(2.4%)
	원노+ 미상	11(5.4%)	4	3	0	7(1.3%)
	공노+ 원비	3(1.5%)	10	4	0	14(2.5%)
	사노+ 원비	2(0.9%)	3	3	0	6(1.1%)
	미상+ 원비	176(85.8%)	240	259	11	510(92.4%)
	합	205(100%)	265	276	11	552(100%)
1783	원노+ 원비	2(0.9%)	1	1	0	2(0.2%)
	원노+ 공비	1(0.5%)	0	0	0	0
	원노+ 양녀	10(4.5%)	7	6	0	13(2.5%)
	원노+ 미상	11(5.0%)	4	3	0	7(1.2%)
	공노+ 원비	3(1.4%)	10	4	0	14(2.5%)
	사노+ 원비	2(0.9%)	3	3	0	6(1.1%)
	미상+ 원비	191(86.8%)	237	272	11	520(92.5%)
	합	220(100%)	262	289	11	562(100%)

1667년에는 종친법이 실시되는 시기로, 서원노비가 누구와 혼인하든 그 소생은 서원 소속이 되었다. 단, 자녀의 소속은 어머니 쪽에 귀속되었기에 소수서원 노가 다른 소속의 비와 혼인하는 경우는 없었다. 미상과 원비의 혼인이 56건(75.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들의 자녀 역시 145명(82.8%)으로 대부분이었다. 원비의 혼인상대방이 누구라도 관계없이 그 소생은 대체로 서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원비의 혼인대상을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원노와 원비의 혼인이 8건(10.8%), 원노와 미상의 혼인 5건(4.1%)이 있었다. 원노와 미상의 경우, 원노와 혼인한 상대방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자녀들이 소수서원에 속한 것을 보면 혼인상대방이 같은 서원의 비이거나 양녀일 수 있다. 원노와 미상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

는 19명(10.8%)으로 미상과 원비의 소생 다음으로 많았다.

1667년에 원노비가 班奴婢로 표현된 경우가 5건, 원비가 매득비인 경우가 2건이 있었고, 이후에는 이러한 용어가 나오지 않았다. 원비 愛粉과 班奴 乙生の 1소생 원노 尙立은 班婢 丁希, 3소생 원노 仇直은 班婢 江阿之와 혼인하였다. 원노 상립과 반비 정희의 혼인에 대해, 1762년 노비안에는 원노 應男의 1소생 원비 丁希가 尙立과 혼인하였다고 기재되었다. 즉, 1667년에는 원노 상립 중심으로, 1762년에는 원비 정희 중심으로 혼인관계를 작성하였다.

원노 구직과 반비 강아지의 혼인에서 1762년에는 원비 今春의 1소생 원비 江阿之가 仇直과 혼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비 강아지는 노 구직을 중심으로 기재되었을 때는 반비로, 비 강아지 위주로 기재할 때는 원비였다. 원노 德吉과 양녀의 5소생 원노 彦男은 班婢 同伊와 혼인하였는데, 비 동이는 비 강아지의 동생이다. 따라서 반노비는 같은 서원의 노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매득비의 경우, 고노 先卜은 매득비 孫先과, 고비 應春의 1소생 원노 命立은 매득비 孫從과 혼인하였다.

공노와 원비의 혼인은 1667년에 2건, 자녀는 1명이 있었다. 여기에서 공노는 교노와 관노이다. 원비 每女는 校奴 云伊와 혼인하였고, 원비 元今の 2소생 원비 豐代는 官奴 石哲과 혼인하였으며 이들의 자녀가 노비안에 기재되었다.

신분이 다른 대상과의 혼인에서 원노와 양녀의 혼인은 1667년 3건(4.0%), 자녀는 5명(2.8%)이 있었고, 양인과 원비의 혼인은 나오지 않았다. 원노 德吉은 良女와 혼인을 하였고, 이들의 2소생 원비 壬粉의 2소생 원노 戒松이 良女와 혼인하였다. 또한 원노 尙明도 양녀와 혼인하였는데, 이후 사망하였기 때문에 1762년 노비안에는 나오지 않았다.

1762년과 1783년 노비안은 종모법 시행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1762년에는 미상과 원비의 혼인이 176건(85.8%), 자녀수는 510명(92.4%), 1783년에는 혼인건수 191건(86.8%), 자녀수는 520명(92.5%)으로 1667년 노비안보다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762년과

1783년 노비안의 혼인상대와 혼인건수는 미상과 원비의 혼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치하였다.

원노와 미상의 혼인은 11건, 자녀는 7명으로, 1667년보다 혼인건수는 늘어났고 자녀수는 줄어들었다. 원노와 원비의 혼인은 2건, 자녀수는 2명으로 1667년보다 둘 다 줄어들었다.

원노비와 공노비의 혼인에서 원노와 공비의 혼인은 1건이 있었다. 여기에서 공비는 校婢였는데, 원비 正月의 2소생 원노 一宗은 校婢 銀女와 혼인하였고 이들의 소생은 나오지 않았다.

공노와 원비의 혼인은 3건이 있었는데, 이 중 2건은 1667년과 중복되었다. 이 중 원비 매녀와 교노 운이의 자녀들은 1762년과 1783년에 나온다. 1762년과 1783년에만 나오는 혼인은 역노와 원비의 혼인인데, 昌樂驛에 거주한 원비 今辰은 역노와 혼인하였고, 4명의 자녀 중 1소생 노 萬伊와 2소생 노 允金은 창락역 소속이 되었다. 소수서원에서는 이들은 원래 소수서원 소속인데, 창락역에 빼앗겼다고 강조하였다.

원노비와 사노비의 혼인에서 원노와 사비의 혼인은 나오지 않고, 사노와 원비의 혼인은 2건(0.9%), 자녀는 6명(1.1%)이 있었다. 원비 德江은 私奴 徵杰과 혼인하여 원노 1명, 원비 2명을, 원비 玉娘은 私奴 彦男과 혼인하여 원노 2명, 원비 1명의 자녀를 낳았다.

신분이 다른 대상과의 혼인에서 원노와 양녀의 혼인은 10건(4.8%), 자녀는 14명(2.4%)이 있었고, 양인과 원비의 혼인은 나오지 않았다. 원비 叔娘의 4자녀 중 2소생 원노 世興과 3소생 원노 一興과, 원비 士今の 9자녀 중 4소생 원비 士今-4소생 원노 許邑石이 양녀와 혼인을 하였다. 원노 尙民은 양녀와 혼인하여 세 명의 자녀를 낳았고, 원노 永老는 양녀와, 이들의 1소생 원노 命山 역시 양녀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았다. 원노와 양녀의 자녀들은 대를 이어서 소수서원 소속의 노비로 존재하였고, 한 가족 안에서 지속적으로 양녀와 혼인하였다.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은 미상과 원비의 혼인이 대부분이었고, 다음은 원노와 미상, 원노와 양녀의 혼인이 있었다. 도산서원의 1759년 노비안과 비교해 보면 원노와 양녀의 혼인은 38건(10.1%), 자녀는 130명

(10.8%)이 있었고, 소수서원은 1762년에 10건(4.8%)의 혼인과 13명(2.4%)의 자녀가 있었다. 한편 원노와 미상의 혼인을 볼 때, 도산서원 노비안에서는 미상이 양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엄두에 둔다면 소수서원에서는 원노와 양녀의 혼인이 10% 정도, 이들 사이의 자녀는 4% 정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⁴⁾ 따라서 소수서원 노비들의 증가에 미상과 원비의 혼인이 큰 역할을 하였고, 혼인관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혼인에서는 종모법의 시행과 관계없이 원노와 양녀, 원노와 미상의 혼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비의 혼인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자녀들이 모두 서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서원에서 원비의 혼인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지만, 원노의 혼인에 대해서 양녀와의 혼인이나 공비와의 혼인 등 자녀들의 소속에 변동의 여지가 있을 때에 상대방을 기재하였고, 원노의 혼인관계가 나타나는 혼인 중에서는 양녀와의 혼인 비중이 높다. 따라서 서원에서 원노와 양녀의 혼인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노와 다른 소속의 비의 혼인은 없었는데, 앞의 Ⅲ-가 완의 내용을 볼 때 원노와 다른 소속의 비의 혼인에 대해서는 서원이 확실하게 개입하였다.

2. 노비의 가족 형태

보통 가족 형태는 세대유형별 가족과 결합형태별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세대유형별 가족은 혈연적으로 이어지는 연결을 강조한 것으로 위로는 부모와 조부모 이상, 아래로는 자녀와 손자녀 이하, 옆으로는 형제 자매, 사촌 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결합형태별 가족으로는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함께 거주한 가족을 알 수 있어서 세대유형별 가족보다 가족의 범위를 파악하기에 좋다.³⁵⁾ 따라서 세대유형별 가족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몇 세대까지 소수서원 소속이 유지되었는지 파악하

34) 김영나, 앞의 논문, 228쪽.

35) 최재석, 『韓國家族研究』, 일지사, 1982, 111~134쪽.

기 위해서였고, 또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노비와 사노비의 경우, 대체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가 가장 많았고, 1세대 역시 많았다.³⁶⁾ 여기에서는 소수서원 노비의 혈연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세대유형별 가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4〉 소수서원 세대유형별 노비 가족

(단위 : 건)

세대 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합
1667	3 (9.1%)	14 (42.4%)	14 (42.4%)	2 (6.1%)	0	0	0	33 (100%)
1762	5 (13.1%)	8 (21.1%)	3 (7.9%)	6 (15.8%)	9 (23.7%)	5 (13.1%)	2 (5.3%)	38 (100%)
1783	2 (5.9%)	7 (20.5%)	3 (8.8%)	8 (23.5%)	5 (14.8%)	4 (11.7%)	5 (14.8%)	34 (100%)
합	10 (9.5%)	29 (27.6%)	20 (19.0%)	16 (15.2%)	14 (13.3%)	9 (8.5%)	7 (6.9%)	105 (100%)

소수서원 노비안에 나오는 가족을 합하면 105건이다. 2세대가 29건(27.6%)으로 가장 많고, 3세대 20건(19.0%), 4세대 16건(15.2%), 5세대 14건(13.3%), 1세대 10건(9.5%), 6세대 9건(8.5%), 7세대 7건(6.9%)이다. 2세대와 3세대가 많았고, 6세대와 7세대는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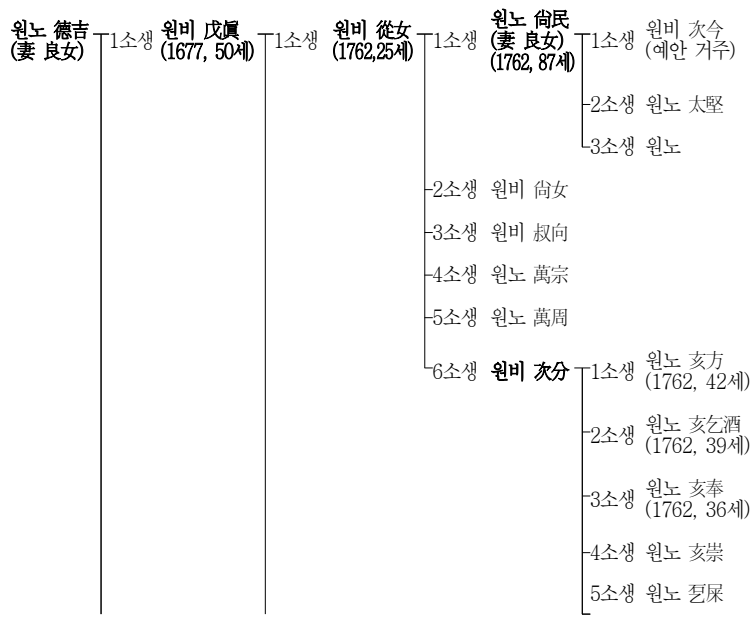
시기별로 살펴보면 1667년에는 4세대 가족까지 나오고, 1762년과 1783년에는 7세대 가족까지 있었다. 1667년 노비안에는 실제 노비를 중심으로 세대를 파악했기에 4세대까지 있었고, 1762년과 1783년 노비안은 노비보 방식으로 기술되어 4세대 이상의 가계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1762년에는 5세대와 2세대, 1783년에는 4세대와 2세대가 많았다. 앞의 노비안보다 2세대와 3세대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4세대에서 7세대까지의 가족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36) 김상환,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17·8세기 丹城縣 戶籍大帳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2, 1989, 72~74쪽; 문숙자, 「16~17세기 兩班家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固城李氏 臨淸閣 分財記 분석을 통하여-」, 『古文書研究』 32, 2008, 168쪽; 김의환, 「진천 평산 신씨 노비 가족의 존재양상-노비의 결혼과 가계 계승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52, 2018, 330~3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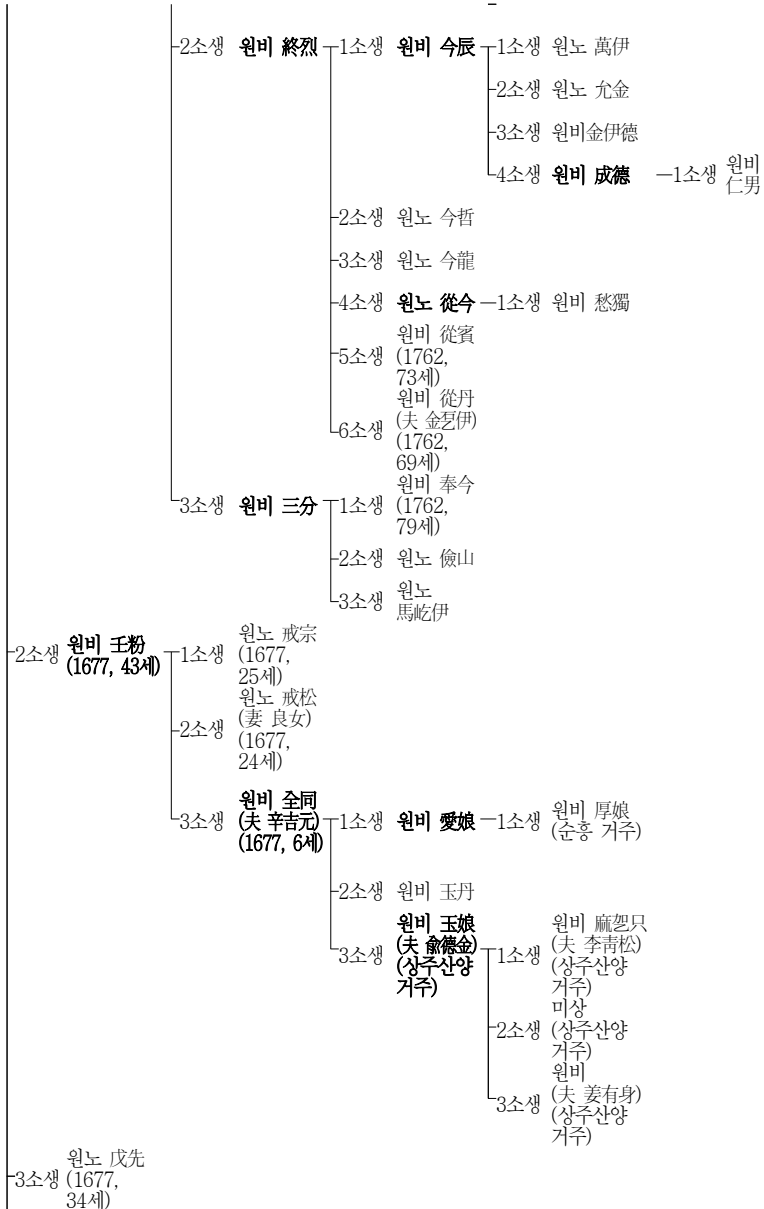
여기에서 중복되는 노비 가족을 제외하고 연결되는 노비들을 합친 실제 가족을 살펴보면, 1세대 2건(5.9%), 2세대 10건(32.3%), 3세대와 4세대는 각각 1건씩(3.3%), 5세대 3건(9.7%), 6세대 2건(6.4%), 7세대 6건(19.3%), 8세대 3건(9.7%), 합 31건이 있다. 2세대가 가장 많고 다음은 7세대이며, 3세대와 4세대가 가장 적었다. 2세대가 많은 것은 공노비와 사노비의 가족과 같은 점이고, 3세대와 4세대가 가장 적은 것은 대부분 7세대와 8세대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8세대까지 노비 가족이 나온다는 것은 이 노비 가족들이 오랫동안 소수서원 소속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원노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한번 소수서원 노비가 되면 소속을 옮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사노비보다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노비 가족이 더 많이 나타났다.

소수서원의 대표적인 노비 가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소수서원 원노 德吉의 가계도



17~18세기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과 가족(김영나)



에 기재하였다. 원비 옥랑의 가족은 모두 상주에 살았는데, 원비 마갈지는 영월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가족이 있는 상주로 도망쳐 돌아왔다. 원노 업선은 안동 乃城에 거주하다가 충청도 단양으로 도망을 갔다.

소수서원 원노 덕길의 자녀들은 대체로 미상과 원비, 원노와 양녀의 혼인을 통해 자녀를 낳고 가계를 이었다. 18세기 중반 이후로는 원비의 혼인을 통해 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원노의 혼인상대와 자녀는 나오지 않았다. 원노 덕길과 그의 자녀들은 순흥·단양·상주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서원 주변 지역에 거주하여서 소수서원에서 서원노비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었다. 거주지를 옮긴 이유는 대체로 도망이었는데, 소수서원에서 도망 노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서원노비의 관리를 잘 하였고, 서원의 경제력에서 서원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거주 지역

공노비 중 寺奴婢는 거주지의 제한이 없었고, 官奴婢는 관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으며, 校奴婢는 향교에 거주하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다.³⁷⁾ 사노비는 주로 주인의 거주지 주변 및 근처 지역에 거주하였고, 주인과 다른 지역에 살기도 하였다.³⁸⁾ 그렇다면 소수서원 노비의 거주 지역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 소수서원 노비의 거주 지역

(단위 : 명)

年	1667			1762				1783			
성별 지역	원노	원비	합	원노	원비	성별 미상	합	원노	원비	성별 미상	합
院村	31 (62.0%)	52 (61.9%)	83 (62.0%)	107 (65.2%)	151 (72.8%)	3 (27.3%)	261 (68.2%)	105 (67.3%)	154 (73.6%)	3 (30.0%)	262 (69.8%)

37) 김상환, 앞의 논문, 50쪽.

38)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연구』, 집문당 1997, 108~120쪽.

순흥	18 (34.0%)	28 (33.3%)	46 (34.4%)	25 (15.3%)	24 (11.7%)	6 (54.5%)	55 (14.5%)	20 (12.8%)	14 (6.8%)	6 (60.0%)	40 (10.7%)
榮川	0	1 (1.2%)	1 (0.7%)	11 (6.8%)	6 (2.9%)	1 (9.1%)	18 (4.7%)	11 (7.1%)	11 (5.3%)	0	22 (5.9%)
풍기				5 (3.0%)	8 (3.9%)	0	13 (3.4%)	4 (2.5%)	11 (5.3%)	0	15 (4.0%)
상주	0	2 (2.4%)	2 (1.5%)	0	4 (1.9%)	1 (9.1%)	5 (1.3%)	0	4 (1.9%)	1 (10.0%)	5 (1.3%)
봉화	-	-	-	5 (3.0%)	6 (2.9%)	0	11 (2.8%)	6 (3.8%)	5 (2.4%)	0	11 (2.9%)
안동	-	-	-	3 (1.8%)	1 (0.5%)	0	4 (1.0%)	3 (2.0%)	0	0	3 (0.8%)
예안	-	-	-	1 (0.6%)	0	0	1 (0.3%)	1 (0.6%)	0	0	1 (0.3%)
칠곡	-	-	-	-	-	-	-	0	3 (1.4%)	0	3 (0.8%)
의성	-	-	-	-	-	-	-	1 (0.6%)	0	0	1 (0.3%)
영춘	0	1 (1.2%)	1 (0.7%)	4 (2.5%)	5 (2.4%)	0	9 (2.4%)	3 (2.0%)	3 (1.4%)	0	6 (1.6%)
제천	-	-	-	2 (1.2%)	1 (0.5%)	0	3 (0.8%)	-	-	-	-
단양	-	-	-	1 (0.6%)	0	0	1 (0.3%)	2 (1.3%)	0	0	2 (0.5%)
충주	-	-	-	-	-	-	-	0	1 (0.5%)	0	1 (0.3%)
영월	1 (4.0%)	0	1 (0.7%)	-	-	-	-	0	2 (0.9%)	0	2 (0.5%)
삼척	-	-	-	0	1 (0.5%)	0	1 (0.3%)	0	1 (0.5%)	0	1 (0.3%)
합	50 (100%)	84 (100%)	134 (100%)	164 (100%)	207 (100%)	11 (100%)	382 (100%)	156 (100%)	209 (100%)	10 (100%)	375 (100%)

1667년 노비안에 나오는 노비의 거주 지역은 院村·순흥·榮川 등 6개 지역이다. 원촌에 거주하는 노비가 원노 31명(62.0%), 원비 52명(61.9%), 합 83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순흥에 원노 18명(34.0%), 원비 28명(33.3%), 합 46명(35.7%)이다. 원촌과 순흥에 거주하는 노비는 전체 중 95% 이상으로, 대부분 서원 근처에 거주하였다.

서원노비가 도망가더라도 이들이 어디에 거주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기도 하였는데, 원노 命立과 買得妻 孫從의 4소생 원노 卜男은 寧越에, 원비 天香의 1소생 원비 莫介와 2소생 원비 一介는 상주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逃’라고만 기재된 노비는 지역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逃居尙州’ 등이라고 표기했을 경우에는 도망 지역을 파악한 것이다.

1762년 노비안에 나오는 거주 지역은 院村·순흥·榮川 등 12개 지역이다. 원촌에 거주하는 노비가 원노 107명(65.2%), 원비 151명(72.8%), 성별미상 3명(27.3%), 합 261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순흥에 원노 25명(15.3%), 원비 24명(11.7%), 성별미상 6명(54.5%), 합 55명(14.5%)이다. 원촌과 순흥에 거주한 노비들은 전체 중 82% 이상인데, 이전 시기보다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다른 지역에 거주한 노비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촌 이외에는 봉화의 월경지 昌海에 원비 萬女の 1소생 원노 辛표이, 안동의 월경지 春陽에 원노 신축의 1소생 원노 爲明이 거주하였다. 원비 만녀의 가족은 순흥에 거주하였지만, 만녀의 1소생 원노 신축과 그의 소생은 안동의 월경지 창해와 춘양에 거주하였다. 상주에 거주하는 노비 중 원비 玉娘은 俞德金과 혼인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소생 원비 麻芻只是 李靑松과 혼인하여 상주에 거주하였다. 단양에 거주하는 원노 業先은 안동 내성에 있다가 도망을 가서 1762년에는 단양에 있었다.

1783년 노비안에는 1762년과 같이 경상도 북부 지역과 충청도와 강원도 삼척 등이 있었고, 칠곡과 의성, 충주가 추가되어 15개 지역이 있다. 원촌에 거주하는 노비가 원노 104명(67.2%), 원비 154명(73.6%), 성별미상 3명(30.0%), 합 26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순흥에 원노 20명(13.0%), 원비 14명(6.8%), 성별미상 6명(60.0%), 합 40명(10.7%)이다. 원촌과 순흥에 거주하는 노비가 전체 중 80%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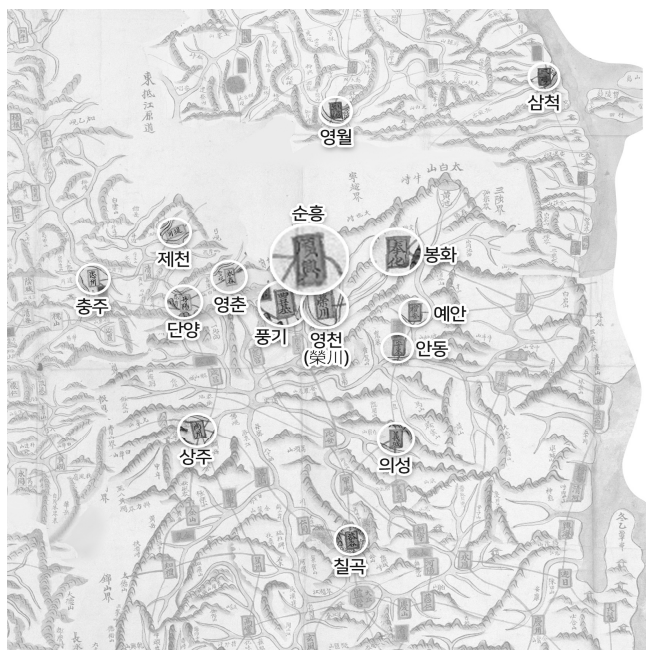
원촌 외의 지역 중 칠곡에 거주하는 노비는 원비 守分の 1소생 원비 後娘과, 그의 1소생 원비 已德과 2소생 원비 戒德이다. 이들은 1762년 노비안에 도망을 갔다고 기재되었고, 1783년에는 漆谷의 架山城에 거주하였다. 원노 貴太는 1762년에 순흥에 거주하였지만 이후 도망을 가서 1783년에는 의성에 있었다.

풍기에 거주하는 원비 岳只의 가족은 흩어졌다. 1소생 원비 卜伊는 충주, 2소생 원노 順卜은 승려가 되어 大興寺에, 3소생 원노 爲益은 풍기, 4소생 원노 爲成은 단양으로 갔다.

또한 소수서원 설립 초기에 획득한 노비들은 홍해·진주·의령·거창·산음 등에도 있었지만,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들은 범죄자의 가족들로 관찰사에 의하여 소수서원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관찰사가 바뀌면서 이들의 소속 역시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소수서원 노비들이 거주한 지역을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³⁹⁾

<그림 2> 소수서원 노비 주요 거주 지역



소수서원 노비들이 거주한 지역은 주로 院村·순흥·榮川·풍기 등 소수서원 주변 지역과 경상도 북부 지역, 충청도 단양·제천, 강원도 삼척 등으로 주로 경상도 북쪽에 집중되었다. 여기에서 안동이나 봉화에

3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767~1778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八道地圖[古4709-14]를 이용하여 거주 지역을 파악하였다.

거주한 경우도 대체로 본거지가 아닌 순흥 근처의 월경지였다.

소수서원 노비들이 거주한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기도 하였다. 첫째, 공적인 공간인 昌樂驛⁴⁰⁾이다. 원비 今辰와 그의 네 자녀는 모두 창락역에 거주하였는데, 그 중 1소생 노 萬伊와 2소생 노 允金은 ‘見奪昌樂驛’이라 하여 창락역에게 빼앗긴 것으로 기재되었고, 3소생 원비와 4소생 원비는 소수서원 소속이었다. 원비 金진은 驛奴와 혼인하였고, 법에 의하여 원비 金진의 아들들은 모두 창락역 소속이 되었다.⁴¹⁾

둘째, 사적인 공간인 榮川 鍾陵齋舍이다. 종릉재사는 개국 1등 공신에 녹훈된 柳濱의 묘를 수호하기 위해 후손인 敬善감사 柳永詢이 1606년(선조 39)에 만들었다.⁴²⁾ 1762년에는 원비 處娘만 거주하였지만, 1783년에는 그의 세 자녀도 함께 거주하였다. 소수서원 노비 가족이 전주 류씨와 관련된 장소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소수서원과 전주 류씨 가문이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류영순이 경상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서원의 노비를 종릉재사로 옮겼을 수도 있다.

셋째, 다른 서원의 서원촌인 榮川의 伊山書院 서원촌, 봉화의 文巖書院 서원촌, 안동의 三溪書院 서원촌이다. 이산서원은 1558년(명종 13)에 蕃川에 건립되었고 李滉을 모셨다. 1574년(선조 7) 사액을 받았고, 1614년(광해군 6) 임구로 이전하였다.⁴³⁾ 1762년 원비 允今の 1소생 원비 女娘과, 원비 여랑의 1소생 원노 太官, 원비 景陽과 그의 자녀들, 원비 何眞과 그의 자녀들이 거주하였다.

봉화의 문암서원 서원촌은 ‘奉化昌海院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창해는 봉화의 월경지로, 창해에 있는 서원은 바로 문암서원이다. 문암서원은 1604년(선조 37)에 창건되어서 李滉과 趙穆을 모셨고 1694년(숙

40) 『嶺南驛誌』(奎 12185-v.1-2) 2책, 1894~1895. 「開國五百三年十二月日昌樂驛誌冊」과 「開國五百三年十二月日昌樂道事例冊」에 본역인 창락역과 창락도의 관할범위가 있는데, 순흥-榮川-봉화, 순흥-예안-안동-예천 방향의 역로였다.

41) 『續大典』, 「刑典」, 公賤. “驛奴娶公·私賤所生, 男從父役, 女從母役…(중략)…驛婢嫁良·賤夫所生男女, 竝屬驛奴婢.”

42) 『榮州市史』 3,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607쪽.

43) 이산서원복설추진위원회, 『伊山書院誌』, 홍익문화사, 2010, 25쪽.

중 20)에 사액을 받았다.⁴⁴⁾ 1762년에 원비 萬女의 1소생 노 辛丑, 1783년에 원비 日辰의 2소생 원노 一다가 거주하였다. 문암서원 서원촌에 거주하는 노비는 앞의 이산서원 서원촌과는 달리 혼자 거주하였다.

안동의 삼계서원 서원촌은 ‘乃城後坪院村’이라고 되어 있다. 삼계서원은 1588년(선조 21) 權機을 모시기 위해 창건하였고, 1660년(현종 1) 사액을 받았다.⁴⁵⁾ 1762년 원비 鋤娘과 그의 두 자녀가 1783년까지 거주한 기록이 있고, 한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

소수서원의 노비들은 서원 근처와 경상도 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다. 이는 사노비의 거주양상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공적인 공간인 驛, 사족의 개인 공간, 다른 서원의 공간인 다른 서원촌에도 거주하였다. 서원에서는 서원노비에게 신공을 받을 수 있다면 서원노비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공간에 거주하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다.

VI. 맺음말

본 논문은 서원의 노비 자체에 주목하여 17~18세기 조선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 소속된 노비의 존재양상을 밝혔다. 소수서원 노비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인 『소수서원노비안』 및 각종 고문서와 여러 성책 등을 이용하였다.

소수서원은 설립 초기에 18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국가나 관청 등에서 제공받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들이었다. 17세기에는 134명에서 18세기에는 380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노비들의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서원에 실제로 신공을 내는 壯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소수서원 노비는 신공으로 쌀 1석을 냈고, 원저에 거주하면서 신역을 담당한 노비와 원노와 양녀의 소생, 서원에 임시로 소속된 노비는 콩 12두를 납부하였

44) 『奉化郡邑誌』(奎 10835), 1899.

45) 한국국학진흥원 편, 『慶北書院誌』下, 경상북도, 2007, 895쪽.

다. 소수서원 노비 중 신역과 신공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은 미상과 원비의 혼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원노와 미상, 원노와 양녀의 혼인이었다. 원비는 혼인대상에 상관없이 자녀는 어머니를 따라 서원노비가 되었다. 원노와 미상의 혼인에서 미상은 대체로 양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자녀 역시 서원노비로 기재되었다. 따라서 소수서원 노비의 증가에는 미상과 원비의 혼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원노와 양녀의 혼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소수서원에서는 원노와 다른 소속 비의 혼인은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소수서원 노비의 세대유형별 가족을 살펴보면 2세대와 3세대가 가장 많았고, 4세대와 5세대의 비중도 높았으며, 1세대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여기에서 중복된 노비 가족을 제외한 실제 가족을 살펴보면, 2세대가 가장 많고 다음은 7세대였으며, 3세대와 4세대 가족은 대부분 7세대와 8세대에 포함이 되었다. 소수서원 노비 가족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소속을 유지하였다. 서원노비의 가계는 사노비보다 연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원노비들은 일반 사노비와는 달리 상속의 대상이 아니기에 소속을 옮기는 일이 적었기 때문이다.

노비들은 소수서원 근처 등 경상도 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다. 17세기보다 18세기에 院村에 거주하는 노비는 더욱 증가하였지만, 봉화·안동·의성 등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가 있었다. 한편, 驛이나 양반의 묘를 수호하는 齋舍, 다른 서원의 서원촌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서원노비가 서원에 의무를 다하면 거주 지역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17~18세기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존재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비연구에서 서원노비의 위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5월 1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經國大典』, 『續大典』, 『朝鮮王朝實錄』
『紹修書院奴婢案』(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기증사료).
『紹修書院牒錄』(奎占 485), 朝鮮史編修會, 1937(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奉化郡邑誌』(奎10835), 1899(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嶺南驛誌』(奎12185-v.1-2), 1894~1895(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고문헌연구소 공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善本
古書 해제집』 3,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 김건태, 「16세기 양반지주층의 경제활동」, 『역사와 현실』 16, 1995.
——, 「18세기 중엽 사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75, 2011.
- 김상환,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 - 17·8세기 丹城縣 戶籍大帳을 중심으로 -」, 『경북사학』 12, 1989.
- 김영나, 『조선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金容晩,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集文堂, 1997.
- 김의환, 「17~19세기 진천 평산 신씨의 노비 소유와 노비의 존재양상」, 『韓國學
論叢』 44, 2015.
——, 「진천 평산 신씨 노비 가족의 존재양상-노비의 결혼과 가계 계승을 중
심으로-」, 『古文書研究』 52, 2018.
-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公的 기반 변화와 그 대응-소수서원 사례를 중심
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2015.
——, 「조선시대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儒學研究』
48, 2019.
- 노대환 등, 『(국역)紹修書院 雜錄 : 雲院雜錄·雜錄·講所雜錄』, 동양대학교 한
국전통문화연구소, 2005.
- 문숙자, 「16~17세기 兩班家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固城李氏 臨淸閣 分財記 분
석을 통하여-」, 『古文書研究』 32, 2008.
——, 「朝鮮後期 書院奴婢의 身分의 性格-陶山書院 古文書を 통한 검토-」,
『퇴계학연구』 11, 1997.

- 閔丙河, 「朝鮮書院의 經濟構造」, 『대동문화연구』 5, 1968.
- 손병규, 「조선후기 경주옥산서원의 노비경영」, 『泰東古典研究』 17, 2000.
-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4, 2006.
- ,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8, 2007.
- , 「18·19세기 소수서원의 院生 연구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 제2권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41, 2008.
- 영남문헌연구소 편, 『紹修書院誌』 上·下, 소수서원, 2007.
- 『榮州市史』 1~5,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이산서원복설추진위원회, 『伊山書院誌』, 홍익문화사, 2010.
-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 최재석, 『韓國家族研究』, 일지사, 1982.
- 한국국학진흥원 편, 『慶北書院誌』 上·下, 경상북도, 2007.

Abstract

The Marital and Familial Forms of Sosu Seowon Slaves of between the 17th to 18th Century

Kim, Young-na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marital and familial forms, as well as the residential areas of slaves through the ancient documents of the Sosu Seowon, including a 17th century slave register, and two 18th century slave registers.

There were initially 18 slaves, but the number increased to 134 in the 17th century and to 380 in the 18th century. Among those with verified ages, slaves aged 10 and younger were the most common in 1677, and those aged 71 and older were the most common in 1762 and 1783. This is because all former Sosu Seowon slaves were recorded in 1762 and 1783. Sosu Seowon slaves paid rice and beans as labor exemption fees.

Marriage between unidentified males(未詳) and female seowon slaves(院婢) was the most common marriage type found in Sosu Seowon slaves. In 1667, the most common type was between male seowon slaves(院奴) and female seowon slaves, and in 1762 and 1763, the most common type was between male seowon slaves and unidentified females and between male seowon slaves and female commoners(良女). Marriage between male seowon slaves and private

female slaves(私婢) was strictly forbidden.

Second generation families were the most common family type among Sosu Seowon slaves, followed by seventh generation families. Seowon slave generations were more continuous than those of private slaves(私奴婢) because Seowon slaves were not subject to inheritance.

The slaves usually lived in the north of Gyeongsang province, but more began living in the Seowon village in the 18th century. There were also slaves who lived in public places such as stage stations, other who lived in private places, and other Seowon villages.

This paper has thus explored the marital and familial relationships, and residential areas of the Sosu Seowon slaves between the 17th and 18th century.

keywords :

Sosu Seowon(紹修書院), Slaves(or nobj in Korean)(奴婢),
Slave register(奴婢案), Marriage, Family, Residential areas

